

2024
08

소그룹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너를 위해 애통하라



새190장(통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새272장(통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새275장(통333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여는 질문

꿈을 꾸다가 울고, 깨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본문 이해

이 구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8-9절은 누가 애통하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가 모호합니다. 화자가 불분명하지만 무엇을 탄식하는지, 탄식하는 상태와 탄식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타조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묘사하는 구절에서 타조가 자칼과 함께 자주 거론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통해하는 자칼의 이미지와 우는 타조의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말 그대로 광야의 자칼과 타조처럼 무너지고 폐허가 된 도시를 두고 통곡하고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의 폐허에 대한 인상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때 위대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 자칼과 타조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말하는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폐허로 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독자와 청취자 모두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울고 슬퍼하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무너진 도시를 위한 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0-16절) 사람들은 무너진 도시를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미가는 본문 전반에 걸쳐 유다의 여러 도시를 언급합니다. 이 도시들은 유다, 특히 동부 지중해의 해안 평야와 중앙 산지 사이에 있으며 중앙 산지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예루살렘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같은 멸망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미가의 배경이 주전 8세기말 아시리아의 침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시리아 왕실 연대기에 따르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유다에 있는 성벽이 있는 도시 46개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 유다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바꿀 기회가 없었습니까?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언제 오겠습니까?

암송 구절 | 미가 1:8-9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녀와 나눔

자녀에게 애통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애통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탄식했는지 들어보십시오.

2

둘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나훔 1:1-5

질투와 복수의 하나님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342장(통367장) 너 시험을 당해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는 질문

다른 사람을 향해 질투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상황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이해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니느웨를 공격해서 그들이 받았던 것을 되갚아주고 복수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재건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아시리아를 복수하게 되면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2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투쟁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절을 보면 그 반대의 성품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진노를 참으셨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아시리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직접 심판하시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고 하시는데 이 징벌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이 질투와 복수심에 차서 또 다른 죄악을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심 엿볼 수 있습니다.

3b-5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북동 연안 지역에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 그리고 '구름'은 보통 바알신에 속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의 신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줍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께서는 벌 받을 자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삶 속으로

- 우리를 해하고 상처를 입힌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나훔 1:3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자녀와 나눔

자녀에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물어보세요

3

셋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학개 1:2-12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



새208장(통246장) 내 주의 나라와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는 질문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아 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본문 이해

학개서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성전 곧 여호와와의 전의 건축에 대한 책입니다. 이 본문은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합니다. 남부 레반트에서는 철기 시대 이후 페르시아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는 역사적 사건, 즉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웠을 때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철기 시대 말에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522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그 해가 다리우스 왕 제2년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개 1장의 배경은 주전 520년 경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약 67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였으며 아직 재건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 파괴는 예루살렘 멸망의 일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인구의 약 90%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허 더미였던 예루살렘은 헬레니즘 시대 초기가 되어서야 도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주전 333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 재건하는 데 25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토록 심각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느헤미아가 학개 이후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아가 유다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본 것은 예루살렘의 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고 재건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더욱 나빴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도시와 지역 사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성전을 짓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12절)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마음을 올바른 길로 두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은 왜 그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토록 진노하신 것일까요?

삶 속으로

- 현대 생활에서 예배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암송 구절 | 학개 1:4-5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녀와 나눔

숙제나 시험 준비로 시간이 촉박할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4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본문 스가랴 8:20-23

진정한 예배자



새9장(통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새19장(통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새21장(통21장) 다 찬양하여라

여는 질문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이해

우리가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지낼 때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스 8:22) 강한 나라들은 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힘과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은총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향하는 곳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선포가 포로 생활의 맥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미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한 부족이 다른 부족,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웠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서로 다른 두 민족 사이의 전쟁이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전쟁은 소위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전쟁을 지상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한 부족이나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는 그 부족이나 국가의 신이 패배한 부족이나 국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들은 이것, 즉 도시의 신이 패배했다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폐허가 된 도시를 위해 추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이틀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 다른 더 강하고 강력한 신, 즉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패배했다고 수 세기 동안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nehemiah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수리하려고 했을 때, 다른 이웃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재건은 그 도시 수호신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예루살렘의 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활과 그를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으로

- 23절에 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옷을 붙잡고 그에게 함께 가고 싶다고 합니까?

삶 속으로

- 우리 시대에 멸망되고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암송 구절 | 스가랴 8:23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녀와 나눔

자녀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 예배의 목적을 물어보십시오.